

가정의 물리적, 인적 음악 환경과 아동의 음악성 발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usical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Musical Development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조교수 김명순
서소문 삼성 어린이집
전교사 이소희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Kim, Myoung Soon
Susomoon Samsung Childcare Center
Former Teacher : Lee, So 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musical development of 3- to 5-year-old children and their musical home environment. The subjects were one hundred ninety-four children and their mothers enrolled in four kindergartens in Seoul. Each child sang the birthday song with peers in a birthday play setting. It was audiotaped for the children to sing the song. Questionnaire of musical home environment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was used for the mothers. The children's rhythm and pitch development were coded by the scoring categories of Project Spectrum(Krechevsky, 1994).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Schéffe, and Pearson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was no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ildren's rhythm development among three age-groups as well as between boys and girls. Among rhythm subcategories, the unit of note was ranked in the highest score and the pulse the next. Second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pitch development among three age-groups and between boys and girls. The older children significantly achieved higher scores than the younger. Among pitch subcategories, the contour was ranked in the highest score and the interval the next. Thirdly, the children's musical development and their physical home environment related to music were correlated positively. The children's pitch development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mothers' musical attitude and the children's rhythm development to the mothers' educational levels.

I. 서론

아동의 음악성 발달은 음악 적성, 음악성, 음악적 능력, 음악적 재능, 음악적 지능, 음악적 선호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려지고 사용되기도 한다. Gordon (1980, 1987)는 한 개인의 음악적 재능은 생의 초기의 음악 경험에 따라 발달하고 계속 변화하다가 9세경이 되면 안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아동기는 음악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이때 아동 주변에 제공된 음악 환경과 아동이 참여한 음악 경험의 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하였다. Gardner(1983)는 모든 인간은 일곱 가지 지적 능력을 지닌다는 다중 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을 주장하였다. 이중 음악적 지능은 자율적인 지적 능력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음악적 지능이 선천적으로 있으나 각 개인이 성장하면서 음악적 경험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음악발달에 개입차가 생긴다고 하였다.

아동의 음악성 발달은 다른 영역의 발달 과정과 유사하다(Bayless & Ramsey, 1991). 대부분의 유아들은 주변의 다양한 소리나 음악을 듣고 반응하거나, 음악의 기초인 소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다른 발달 영역과 마찬가지로, 영아나 유아에게 소리나 음악과의 경험 기회가 얼마나 질적으로 우수하고 풍부하게 주어졌느냐에 따라 후의 음악적 성장 및 이해, 그리고 개인의 음악적 기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중요한 경험 중 하나가 가정의 음악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LeBlanc, 1987; Peery & Peery, 1986). Doxey & Wright(1990)도 아동의 음악 능력은 가정의 사회적, 물리적 음악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을 지었다.

음악은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로 구성된다. LeBlanc(1987)는 음악의 요소로서 리듬, 가락, 화음, 음색(timbre), 조직(texture), 형식(form)을, Andress(1995)는 피치, 리듬, 화음, 음의 세기(dynamics), 음색, 조직, 형식을 제시하였으며, Campbell과 Scott-Kassner (1995)는 리듬, 가락, 음색, 형식, 조직, 표현적 질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은 아동

의 다른 발달 영역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형성되며 발달되어 간다(Thomas, 1970). 즉 음악적 요소는 아동 자신의 탐색과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습득되고 세련되어 간다는 것이다. 특히 리듬은 가장 먼저 발달되는 음악적 요소로서 리듬은 만 3세 경에 짧은 패턴의 모방이 가능하게 발달된다(Scott-Kassner, 1993; Williams, 1977).

Gorden(1987)에 의하면 아동의 음악적 재능은 생의 초기부터 발달하고 변화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인 만 9세를 전후하여 안정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규 음악 수업이 주어지는 초등학교 시기 이전의 생의 초기에 아동이 경험하는 가정의 음악 환경은 음악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해진다.

우리나라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성 발달과 가정의 음악 환경에 대한 연구는 다른 발달 영역과는 달리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음악성 발달의 분야는 특정 음악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음악적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둔 연구 보고가 많았고(신인숙, 1994; 이숙희, 1993), 자연스런 놀이 상황에서의 아동의 연령별 음악성 발달이나 가정의 음악 환경을 탐구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만 3-5세 아동의 음악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리듬과 피치를 중심으로 자연스런 놀이 상황에서 아동의 음악성 발달이 연령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아동의 음악성 발달과 가정의 음악 환경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가정과 기관에서의 바람직한 인적, 물리적 음악 환경을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하며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능 습득 위주의 음악 교육을 지양하고 좀 더 적절한 유아 음악 교육의 실제의 방향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영아는 생후 4개월이 되면 웅얼이의 발성화가 증

가하고, 자신이 내는 웃음소리를 재미있어 하여 계속적으로 반복하는(McCall, 1985) 등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한 소리 만들기 실험을 지속해 나간다. 이때 부모가 노래나 말소리를 들려주면 영아의 발성화는 더욱 증가된다. 특히, Greenberg(1979)는 생후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영아가 내는 웅얼이를 '음악적 웅얼이(musical babbling, p. 60)'라고 명명하였고, 이러한 음악적 웅얼이는 성인이 영아에게 노래를 들려줄 때 영아가 빈번하게 산출하며 다양한 높낮이가 있는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소리 뿐 아니라 노래에 대한 반응 역시 신생아 때부터 민감하게 이루어지는데 특히 전세계 대부분의 문화에서 부드럽고 리드믹하게 들려지는 자장가는 아기를 편안하게 하고, 조용하게 하며, 더 쉽게 잠들게 한다는 공통성을 지닌다(Bayless & Ramsey, 1991). 따라서 영아기에 있어서 가정에서 들려주는 자장가는 음의 높낮이와 리드믹한 움직임, 음색이 다른 음성 및 가사를 통해 영아의 음악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게 된다.

한 개인의 음악적 선호(music preference)나 기호가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LeBlanc(1987)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일차적으로는 음악 그 자체의 특성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근원이 되고, 이차적으로는 각 아동 개인의 특성(신체적 상태, 주의 집중, 정서 상태, 청각적 민감성, 성격, 성,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기억 능력 등)이 음악적 선호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음악 자체의 특성이라 함은 자극의 물리적 속성(리듬, 가락, 화음, 음색, 조직, 형식), 자극의 복잡성, 자극의 참조적 의미, 연주의 질적 수준 등을 포함한다. LeBlanc는 이러한 음악 그 자체의 특질과 개인의 특성외에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환경을 지적하였다. 환경이라 함은 가족의 영향, 또래 집단의 영향, 교육자나 관련자의 영향 및 아동 자신이 음악을 듣는 현재의 부수적인 상황이라고 하였다. 특히 생의 초기 시기에는 또래나 교사의 영향보다는 가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된다. LeBlanc는 일차적 영향과 이차적 영향의 받으며 아동의 음악적 선호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서서히 형성되어 간다는 상호작용적 모델을 주장하였다.

Peery(1993)도 자신의 생애 있어 중요한 사람 즉 성인이나 교사 등이 아동의 음악적 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음악에 대해 반복적인 노출이 되거나 음악에 대한 훈련을 받았을 때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Peery(1993)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기의 아동인 4세들도 음악적 기호를 지니고 있는데 이들은 절충적 음악 기호를 지니고 있어 고전 음악과 대중 음악을 모두 좋아하며 대체적으로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이 초등학교 5, 6학년쯤이 되면 고전 음악보다는 대중 음악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Peery & Peery, 1986). 따라서 만 3-5세 아동에게는 다양한 음악적 환경을 마련해 주고 가족이나 중요한 성인이 아동과 끊임없이 음악과 관련한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Haines & Gerber(1996)는 음악적 경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리듬으로, 리듬은 음색 있는 소리로부터 음악을 만들고 조직하는 기본적 요소라고 하였다. 리듬은 소리와 시간에 기초한 물리적 특성을 기술하는 박동(beat), 박자(meter), 소리의 장단, 리듬 패턴 및 속도(tempo)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리듬 및 피치 발달은 만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이 시기에 리듬을 산출하는 능력은 연령과 경험에 따라 증가한다. 2세까지의 영아는 몸의 움직임이나 언어적 패턴에서 리듬 있게 흔들거나 음악적 웅얼이를 한다. 2세가 되면 적절한 음악에 따라 몸을 흔들거나 걸을 수 있으나, 아직 이름과 같은 간단한 단어 리듬에 맞추어 손뼉을 칠 수 없다. 3세가 되면 짧은 리듬 패턴을 따라 할 수 있고 목소리로 리듬을 내는 것이 가능하며 목소리로 낸 후에 손뼉을 칠 수 있다. 3-5세 아동은 규칙적으로 정해진 박동에 따라 발로 박자를 맞추거나 리듬 미치게 손뼉치고 두드릴 수 있다(김명순, 조경자, 1998). 5세경의 유아는 리듬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리듬에 맞추어 적절한 몸 움직임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부분의 리듬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되고, 노래와 곡조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된

다(Scott-Kassner, 1993).

Trehub, Morrongiell와 Thorpe(1985)는 아동의 음정 변화(interval change), 음흐름 변화(contour change), 조 변화(key change)를 연구한 결과 5세 아동들은 음정, 음 흐름, 조로 구분하여 민감하게 멜로디의 변화를 구분하였다. 우리나라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윤승(1997)의 연구에서는 만 5세 아동의 실험 집단에게 리드믹 활동을 5주간 실시하였을 때 통제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리듬 학습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Doxey & Wright(1990)는 4-6세 유아, 유치반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음악적 능력과 아동의 가정, 학교의 사회적, 물리적 음악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음악적 태도, 가정에 악기의 유무, 음악지도를 받는 형제의 유무, 아동의 창의성 등과 아동의 음악적 재능간의 의미있는 관계가 발견이 되었다. 특히 부모보다는 교사가 더 정확하게 아동의 음악적 재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가정과 학교의 물리적인 음악환경 뿐 아니라 가족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히 아버지의 음악적 참여가 아동의 음악적 재능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Doxey & Wright(1990)는 음악에의 노출, 음악적 활동, 음악적 발달에 대한 내적 외적 동기를 부여하는 사회적·물리적 환경이 생의 후의 음악적 성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4개 유치원의 만 3, 4, 5세 총 194명의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아동의 선정 방법은 다음의 두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각 유치원의 어머니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질문지가 회수된 어머니의 아동을 일차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일차 선정된 아동 중 본 연구 과정에서 노래부르기를 거부

〈표 1〉 연구 대상 아동의 인구론적 배경

		(N=194)	
배경변인		부	모
평균연령 (범위)		37.0세 (30~54세)	33.7세 (25~48세)
학력 수준(%)	초등졸	1(0.5)	1(0.5)
	중 졸	4(2.1)	5(2.6)
	고 졸	53(27.3)	75(38.7)
	전문대졸	12(6.2)	19(9.8)
	대 졸	88(45.4)	80(41.2)
	대학원졸	32(16.5)	10(5.2)
	무응답	4(2.1)	4(2.1)
직 업(%)	전문직	41(21.1)	18(9.3)
	회사원	66(34.0)	7(3.6)
	상 업	32(16.5)	3(1.5)
	금융/공무원	15(7.8)	1(1.0)
	건축설비	6(3.1)	0(0.0)
	자영업	14(7.2)	5(2.6)
	운수업	7(3.6)	0(0.0)
	무직/주부	9(4.6)	156(80.4)
	무응답	4(2.1)	3(1.5)

한 아동을 제외하여 최종 연구 대상 아동을 선정하였다. 대상 아동은 3세가 37명(남: 22, 여: 15명), 4세가 73명(남: 37, 여: 36명), 5세가 84명(남: 37, 여: 47명)으로 총 194명(남: 96, 여: 98명)이었다. 유치원의 특성상 3세 아동의 수는 다른 연령에 비해 적었다.

〈표 1〉에서 연구 대상 아동의 일반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가 37세, 어머니가 33.7세였다. 아버지의 학력 수준은 대졸이 가장 많았고(45.4%), 그 다음이 고졸(27.3%)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대졸(41.2%)과 고졸(38.7%)이 거의 유사한 비율로 높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50% 이상이 전문직, 회사원, 공무원이었고, 30%가 상업이나 자영업, 운수업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80%가 가정 주부였다.

2. 연구 도구

1) 음악성 발달

아동의 음악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Harvard 대학의 Project Zero에서 연구된 유아용 평

가 지침서인 Project Spectrum(Krechevsky, 1994)의 음악영역에서 “생일축하노래” 부르기 활동을 사용하였다. 이 활동은 취학전 아동의 음악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4가지 활동 중 하나이다. 각 아동의 노래는 녹음기에 녹음되어 <표 2>의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기준에 맞으면 1점을, 그렇지 않으면 0점을 주어 합산한다. 리듬 점수는 각 4점씩 총 16점까지 나오며, 피치점수는 음흐름이 4점, 조가 3점, 음정이 4점으로 총 11점까지 나온다. 각 기준에 따른 채점의 신뢰도를 위해 본 연구자 중 한 명과 석사학위 소지자이며 고등학교 음악 강사인 음악전공자 1인과 일치도를 구한 결과는 .81이었다.

<표 2> 리듬과 피치영역의 채점 기준

영역		채점 기준
리듬	음의 수	악절에 포함된 음의 개수가 정확한가
	음의 장단 박동 명확성	음의 장단이 짧고 긴 것이 정확한가 일정한 박동을 가지고 있는가 박자에 정확히 맞는가
피치	음 흐름	멜로디의 오름과 내림이 정확한가
	조	악절간에 조가 일정히 유지되는가
	음정	음간의 이등이 정확한가

2) 가정의 음악 환경 질문지

가정의 인적, 물리적 음악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들이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질문지 내용은 가족의 음악적 경력(6문항), 가족 구성원의 음악에 대한 흥미(7문항), 음악에 대한 태도(16문항),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의 수(1문항), 음반(1문항), 음악관련 책 및 음악 기기(2문항)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 절차

1) 예비 조사

제 1차 예비조사는 생일축하노래의 적절성과 연령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먼저 2, 3, 4, 5세 아동 총 32명을 대상으로 첫째, “생일축하노래”

가 아동이 혼자서 부를 수 있을 만큼 친숙한 노래인가, 둘째, 생일축하노래를 부르기 위해 마련된 생일 놀이 상황이 아동의 노래를 이끌어 내기에 적절한가, 셋째, 한번에 몇 명의 아동이 함께 생일 놀이를 하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가, 넷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2세 아동의 경우는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 2차 예비조사로 생일축하노래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3, 4, 5세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학교 종이’, ‘송아지’, ‘생일축하노래’의 3곡을 불러보게 하였다. 그 결과 생일축하노래는 교사의 도움없이 아동 혼자 부를 수 있었던 반면 나머지 두 곡은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생일축하노래를 최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예비조사 결과, 생일축하 놀이 상황은 약 8-10분 정도가 소요되고, 놀이는 4명씩 함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가정의 음악 환경 질문지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 1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2) 본 조사

서울시에 소재한 4곳 유치원(3곳은 사립 유치원, 1곳은 공립유치원)의 어머니에게 가정환경질문지를 배부한 후 총 198부가 회수되었고, 질문지에 응답한 어머니의 아동이 생일 축하 놀이에 참여하였다. 생일놀이는 유치원의 자유놀이 시간 중 조용한 곳에서 연구자 중 한 명과 4명의 아동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모형 생일 케이크와 생일 초, 선물 모형을 사용하였다. 생일축하 놀이를 하다가 각 아동이 한번씩 생일축하노래를 부르게 되고 아동의 노래는 녹음되었으며 이때 노래 부르기를 거부하는 4명의 아동은 제외되어 총 194명 아동의 노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리듬과 피치 발달을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é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리듬과 피치발달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고 가정의 인적, 물리적 음악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아동의 음악성 발달

아동의 음악성 발달 중 리듬과 피치발달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와 같이 리듬의 평균 점수는 총 16점 중 11.70점으로 비교적 높았고 남아와 여아의 점수가 거의 유사하였다. 연령별로는 3세가 12.16점, 4세가 11.40점, 5세가 11.76점으로 3세가 다른 연령보다 약간 높았다. 피치의 전체 평균 점수는 총 11점 중 6.53점으로 낮았으며 남아보다는 여아가 약간 높은 점수였다. 연령별로 보면 3세가 5.30점, 4세가 6.47점, 5세가 7.10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높았다.

리듬과 피치의 하위영역별 점수 결과는 <표 4>

<표 3> 리듬과 피치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음악성	성별	3세 (n=37)	4세 (n=73)	5세 (n=84)	계 (N=194)
		M (SD)	M (SD)	M (SD)	M (SD)
리듬	남	11.96(2.44)	11.92(2.78)	12.03(2.21)	11.58(2.52)
	여	12.47(1.89)	11.89(2.41)	11.55(2.54)	11.82(2.40)
	계	12.16(2.22)	11.40(2.63)	11.76(2.39)	11.70(2.46)
피치	남	5.18(2.68)	5.87(1.95)	7.00(2.08)	6.15(2.28)
	여	5.47(2.30)	7.11(2.23)	7.19(2.39)	6.90(2.38)
	계	5.30(2.50)	6.47(2.17)	7.10(2.25)	6.53(2.35)
총 계		17.46(3.71)	17.88(4.01)	18.87(3.76)	18.23(3.87)

<표 4> 리듬의 하위영역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리듬의 하위영역	성별	3세 (n=37)	4세 (n=73)	5세 (n=84)	계 (N=194)
		M (SD)	M (SD)	M (SD)	M (SD)
음의 수	남	3.86(.35)	3.70(.66)	3.89(.32)	3.81(.49)
	여	3.87(.35)	3.78(.49)	3.77(.48)	3.79(.46)
	계	3.87(.35)	3.74(.58)	3.82(.42)	3.80(.47)
음의 길이	남	2.32(.95)	2.38(.89)	2.49(.87)	2.41(.89)
	여	2.53(.74)	2.75(.73)	2.49(.83)	2.59(.78)
	계	2.41(.87)	2.56(.83)	2.49(.84)	2.50(.84)
박동	남	3.59(.80)	2.78(.95)	3.32(.82)	3.18(.92)
	여	3.60(.63)	2.97(1.00)	3.04(1.00)	3.10(.97)
	계	3.60(.73)	2.88(.97)	3.17(.93)	3.14(.94)
명확성	남	2.18(1.01)	2.05(1.00)	2.32(.88)	2.19(.96)
	여	2.47(.74)	2.39(.90)	2.26(.90)	2.34(.87)
	계	2.30(.91)	2.22(.96)	2.29(.89)	2.26(.92)
전 체		12.16(2.22)	11.40(2.63)	11.76(2.39)	11.70(2.46)

〈표 5〉와 같다. 〈표 4〉에서 보면 리듬의 하위영역 중 음의 수가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박동, 음의 길이, 명확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의 점수는 각 하위영역에서 유사하였다. 〈표 5〉에서 보면, 피치의 하위영역 중 음흐름의 점수가 매우 높았지만 음정과 조 점수는 낮았다. 피치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여아의 점수가 남아보다 높았다.

리듬과 피치 점수에 있어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리듬점수와 리듬의 하위영역별 점수 어느 것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피치 점수의 ANOVA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피치의 전체 점수의 경우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간 차이를

Schéffe검증 한 결과, 3세와 4세($p<.05$), 3세와 5세($p<.001$)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치의 하위영역별 점수 중 음흐름의 점수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조와 음정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 결과가 〈표 7〉과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을 보면, 조 점수에서 연령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연령간 차이를 Schéffe검증 한 결과, 조점수에 있어서 3세와 5세($p<.05$), 4세와 5세($p<.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을 보면, 음정점수에서도 연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반면 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연령간 차이를 Schéffe검증 한 결과, 음정 점수에 있어서 3세와 4세($p<.05$), 3세와 5세($p<.05$)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표 5〉 피치의 하위영역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피치의 하위영역	성별	3세(n=37)	4세(n=73)	5세(n=84)	계(N=194)
		M (SD)	M (SD)	M (SD)	M (SD)
음흐름	남	3.18(1.26)	3.32(.82)	3.54(.73)	3.38(.91)
	여	3.27(.96)	3.64(.80)	3.62(.77)	3.57(.81)
	계	3.22(1.13)	3.48(.82)	3.58(.75)	3.47(.87)
조	남	.55(.74)	.76(.64)	1.43(1.09)	.97(.93)
	여	.73(.88)	1.22(1.05)	1.36(1.13)	1.21(1.08)
	계	.62(.79)	.99(.89)	1.39(1.11)	1.09(1.01)
음정	남	1.46(1.14)	1.78(1.00)	2.03(.93)	1.80(1.02)
	여	1.47(1.06)	2.25(1.11)	2.21(1.04)	2.11(1.09)
	계	1.46(1.10)	2.01(1.07)	2.13(.99)	1.96(1.07)
전 체		5.30(2.50)	6.48(2.17)	7.11(2.25)	6.53(2.35)

〈표 6〉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피치점수의 이원변량 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주효과	6644.24		6644.28	1309.13
연령	78.50	2	39.25	7.73***
성	13.79	1	13.79	2.72
연령×성	11.96	2	5.98	1.18
오차변량	954.16	188	5.08	
전 체	9330.00	194		

*** $p<.001$

〈표 7〉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조점수의 이원변량 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주효과	170.17		170.17	180.39
연령	15.77	2	7.88	8.36***
성	1.58	1	1.58	1.67
연령×성	2.79	2	1.39	1.48
오차변량	177.35	188	.94	
전 체	430.00	194		

*** $p<.001$

〈표 8〉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음정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주효과	582.28		582.28	539.11
연령	11.25	2	5.63	5.21**
성	2.05	1	2.05	1.90
연령×성	1.44	2	.72	.67
오차변량	203.05	188	1.08	
전체	964.00	194		

** $p < .01$

〈표 9〉 가족 구성원의 음악 경력에 따른 아동의 음악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N=194)

	전공유무		수업유무	
	유(n=26) M(SD)	무(n=168) M(SD)	유(n=75) M(SD)	무(n=119) M(SD)
리듬점수	12.0(2.56)	11.7(2.45)	11.8(2.44)	11.6(2.48)
피치점수	6.6(2.04)	6.5(2.40)	6.6(2.45)	6.3(2.18)
전체	18.6(3.57)	18.2(3.97)	18.4(3.98)	17.9(3.72)

〈표 10〉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반 수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N=194)

	1-10개	11-20개	21-30개	31-40개	40개이상	없다
서양고전음악	62(32.0)	27(13.9)	18(9.3)	8(4.1)	30(15.5)	49(25.3)
종교관련음악	124(63.9)	15(7.7)	7(3.6)	3(1.5)	3(1.5)	42(21.6)
재즈	86(44.3)	15(7.7)	4(2.1)	1(.5)	0(0.0)	88(45.4)
대중가요(외국, 한국)	66(34.0)	45(23.2)	28(14.4)	13(6.7)	22(11.3)	20(10.3)
우리나라민요	71(36.6)	1(0.5)	3(1.5)	0(.0)	0(0.0)	119(61.3)
우리나라가곡	126(64.9)	14(7.2)	3(1.5)	0(.0)	3(1.5)	48(24.7)
동요	126(64.9)	39(20.1)	8(4.1)	3(1.5)	5(2.6)	13(6.7)
기타	8(4.1)	1(0.5)	0(0.0)	1(0.5)	3(1.5)	181(93.3)

밝혀졌다.

2. 가정의 음악 환경과 아동의 음악성 발달

가정의 인적 음악 환경으로 연구 대상 총 194명 중 26명(13.4%) 아동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음악 전공 기간은 9.38년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척 중 전공은 아니지만 음악 수업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총 75명(38.7%)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수업 기간은 평균 3.69년이었다. 가정 구성원의 음악 경력 유무에 따라 아동의 리듬과 피치 점수를 비교하여 보면(표 9 참조), 음악을 전공하거나 음악 수업을 받은 구성원이 있는 가정의 아동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의 리듬 점수와 피치 점수에 있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t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의 물리적 환경으로서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반의 수와 음악관련 서적 수 및 백분율이 〈표 10〉과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을 보면, 가정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음반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음반의 종류는 대중가요와 동요, 종교관련 음악으로 대중가요는 20가족, 동요는 13가족만이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우리나라 민요는 119곳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11〉을 보면, 음악관련 서적의 경우 음반보다는 적은 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음반과 동일하게 대중가요집, 아동용 음악관련 책, 종교음악관련 책자 등이 다른 음악 서적에 비해 많았고 우리나라 민요관련 서적이거나 음악사전, 음악관련 잡지, 에세이 등은 매우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는 아동의 리듬과 피치 점수를 가정에서 보유한 음반의 수, 음악 서적의 수, 어머니의 음악에

<표 11>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악관련 서적의 수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N=194)

	1-5권	6-10권	11-15권	16-20권	20권이상	없다
세계명곡집	65(33.5)	9(4.6)	3(1.5)	2(1.0)	1(0.5)	114(58.7)
종교관련악보	91(46.9)	9(4.6)	0(.0)	3(1.5)	1(0.5)	90(46.3)
우리나라가곡집	61(31.4)	5(2.6)	2(1.0)	0(0.0)	0(0.0)	126(65.0)
우리나라민요집	25(12.9)	2(1.0)	0(.0)	0(0.0)	0(0.0)	167(86.1)
대중가요집	81(41.8)	9(4.6)	1(.5)	0(0.0)	0(0.0)	103(53.1)
음악사전	21(10.8)	2(1.0)	0(.0)	0(0.0)	0(0.0)	171(88.1)
음악전문잡지	24(12.4)	1(.5)	2(1.0)	0(0.0)	2(1.0)	165(85.0)
음악관련에세이	22(11.3)	3(1.5)	0(.0)	0(0.0)	0(0.0)	169(87.1)
음악관련 아동용책	88(45.4)	8(4.1)	5(2.6)	0(0.0)	1(0.5)	92(47.4)
기타악보	38(19.6)	12(6.2)	4(2.1)	3(1.5)	3(1.5)	134(69.0)

<표 12> 아동의 음악성과 가정음악환경과의 상관계수

(N=194)

	음반수	음악서적수	아버지의 음악태도	어머니의 음악태도	아버지의 학력수준	어머니의 학력수준
리듬점수	.19**	.02	.021	.015	.11	.17*
피치점수	.19**	.13	.103	.170*	.01	.01
전 체	.24**	.06	.076	.094	.06	.07

* $p < .05$ ** $p < .01$

대한 태도, 아버지의 음악에 대한 태도, 아버지 및 어머니의 학력 수준과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결과이다. 아동의 리듬 점수는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음반수 및 어머니의 학력 수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냈고 아동의 피치 점수는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음반수 및 어머니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 4, 5세 아동의 음악성 발달 중 리듬과 피치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가정의 인적, 물리적 음악 환경이 아동의 음악성 발달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리듬 발달은 만 3, 4, 5세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리듬은 만 3세부터 안정되게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성별간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리듬발달이 다른 음악적 요소 중 가장 먼저 발달하는 요소이며 만 3세경부터 시작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Scott-Kassner, 1993). 그러나 3-6세 아동의 리듬발달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Williams(1977)과 Bedsole(1987)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만 3세 아동의 경우 4세나 5세보다 리듬의 평균 점수가 약간 높게 나온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 중 한가지 해석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만 3세 유치원 취원율은 10.2%인 반면 4세는 27.3%, 5세는 45%로 나타나(OECD, 1996), 3세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에는 4-5세 아동의 가정보다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정의 교육적 동기가 높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본 연구 대상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직업을 아동의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볼 때, 만 3세 아동의 아버지 중 95%가 대졸 이상인 반면 4세는 58%, 5세는 50%였으며, 어머니의 경우도 3세의 경우는 대졸 이상이 68%인 반면, 4세는 36%, 5세는 35%로 나타났다. 3세경을 넘어서면서 리듬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모의 고학력 및 이와 관련된 가정의 요인이 좀 더 음악적 환경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쳐 4, 5세보다 3세의 경우 리듬 점수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리듬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더 어린 연령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리듬의 하위영역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음의 수가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박동, 음의 길이, 명확성의 순으로 나타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리듬의 수와 박동이 음의 장단이나 박자를 맞추는 것보다 좀 더 빨리 발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피치 발달은 리듬발달보다 후에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3, 4, 5세 아동의 피치발달은 연령간에 유의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만 3세와 4세, 3세와 5세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4세를 전후하여 안정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4세 경에 음의 고저, 높낮이 등의 멜로디 측면을 개념화하기 시작하며 연령에 따라 피치 발달에 차이가 있었다는 Campbell과 Scott-Kassner(1995) 및 Lenz(1975)의 주장과 일치한다. 피치의 경우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만 3, 4, 5세 아동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점수가 약간 높았다. 피치발달에 있어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Forsythe(1984)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성별에 따른 피치발달에 대한 연구는 추후에 다각도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피치의 하위영역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음흐름 영역 즉 멜로디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흐름은 피치 영역 중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발달하는 반면 같은조를 유지하는 것과 정확한 음정을 내는 것은 만 3, 4세의 경우까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앞으로 이러한 부족한 피치 요소를 고려하여 아동의 음악

경험을 확장하는 것이 유아 음악 교육에 있어 필요 하리라 사료된다.

셋째, 가정의 인적, 물리적 음악 환경에서 가족 중 음악을 전공하였거나 음악 수업을 받은 사람이 있는 가정의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리듬과 피치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거의 유사하였고 이것은 Doxey와 Wright(199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가족 구성원이 음악을 전공하였거나 음악 수업을 받았던 경험이 가정내의 음악 생활로 확산이 되어 가정내 음악 환경을 질적으로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의 물리적 음악 환경 중 음반은 종교관련 음악이나 대중가요음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아동용 동요 음반도 1-20개까지 소유한 가정이 전체의 82%로 비교적 많았다. 그리고 음악관련 서적도 음반 소유 경향과 같아 대중가요집이나 종교관련책, 아동관련 음악책을 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적과 음반은 주로 음악 감상 차원 보다는 따라 노래부르기가 쉬운 것들로 우리나라 가정에서 이러한 종류의 노래를 듣고 따라부르기, 일을 할 때 틀어놓기 등을 즐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민요음반 소유, 가족들이 함께 음악회나 연주회에 가거나 악기 연주하기, 노래나 악기 연주를 가족들이 함께 감상하기는 매우 적어 가정에서 접하는 음악이나 음악활동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5세 가정의 음악 환경에 있어 고전 음악, 우리나라 음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곡을 감상하거나 가족이 함께 음악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매우 적게 제공되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음악 환경 마련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 유치원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음악 활동이 노래 부르기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상활동은 매우 적게 실시되고 있다. 연구 결과를 감안한다면 (박찬옥·정미라·김영옥, 1997), 가정과 기관 모두에서 만 3-5세 아동을 위한 음악감상하기, 악기 다루기, 즉흥연주하기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의 바람직한 기회(김명순·조경자, 1998; McDonald, 1993; Parmer, 1993) 제공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의 음악적 환경과 아동의 리듬과 피치발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리듬과 피치점수 모두는 가정에서 보유한 음반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음반을 적게 소유한 가정보다 많이 소유한 가정의 아동이 음악을 들을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됨으로서 음악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Doxey와 Wright(1990), Jenkins(197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아동의 피치점수는 어머니의 음악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아동의 리듬점수는 어머니의 학력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아동의 음악 능력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어린 연령도 친근한 노래를 부를 경우 리듬 발달이 안정되게 이루어지고 이중 음의 수나 박동은 가장 먼저 발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담당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이들의 리듬 발달을 돕기 위해 다양한 리듬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듬 발달에 비해 피치 발달은 만 4세 경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지만 같은 조를 유지하거나 정확한 음정 산출은 4세 경우라 하더라도 어렵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서 만 3, 4세 유아를 위한 음악적 경험이 멜로디 측면에 너무 치우치거나 정확한 음을 반복해서 산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유아의 음악성 발달은 가정의 물리적 음악 환경과 어머니의 음악적 태도와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아동의 음악성 발달에 있어 가정의 물리적, 인적 음악 환경이 모두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생일축하노래 한 곡만을 가지고 아동의 리듬과 피치 발달을 측정하였다는 것, 생일축하노래가 이시기의 아동에게 매우 익숙한 곡이긴 하지만 음역이 비교적 넓었다는 점, 그리고 3세 아동의 경우 대상을 구하기가 어려워 다른 연령에 비해 연구 대상 수가 적음으로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골고루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가정의 자연스런 상황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노래부르기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좀

더 어린 연령에서의 리듬이 어떻게 발달하고, 좀 더 나이든 연령에서 피치가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명순·조경자(1998). 유아를 위한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다음세대.
- 2) 박찬욱·정미라·김영옥(1997).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평가 연구. 유아교육학회 보고서.
- 3) 신윤승(1997). 리드믹 활동에 따른 유아의 음감·리듬 향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신인숙(1994). 아동 연령과 적성 유형에 따라 음악 학습 프로그램이 아동 음악 적성에 미치는 효과. 효성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5) 이숙희(1993). 5세 유아의 음악청취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Andress, B.(1995). Transforming curriculum in music. In S. Bredekamp & T. Rosegrant(Eds.), *Reaching potentials: Transforming early childhood curriculum and assessment Vol. 2*(pp.99-108).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7) Bayless, K. M. & Ramsey, M. E.(1991). *Music: A way of life for the young child*(4th Ed.). Columbus, OH: Merrill Publishing.
- 8) Bedsole, E.(1987). A descriptive study of the musical abilities of three-year and four-year ol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Urbana-Campaign, Illinois.
- 9) Campbell, P. S. & Scott-Kassner, C.(1995). *Music in childhood*. New York: Schirmer Books.
- 10) Doxey, C. & Wright, C.(1990). An exploratory study of children's music abilit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425-440.
- 11) Forsythe, R.(1984). The development and

- implement of a computerized preschool measure of music audi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Ohio.
- 12) Gardner, H.(1983). *마음의 틀*. 이경희역. 서울: 문음사.
 - 13) Gordon, E. E.(1980). The assessment of music aptitudes of very young children. *Gifted Child Quarterly*, 24, 107-111.
 - 14) Gordon, E. E.(1987). *The nature, descrip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music aptitude*. Chicago: GIA Publication.
 - 15) Greenberg, M.(1979). *Your children need music*.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16) Haines, B. & Gerber, L.(1996). *Leading young children to music(5th Ed.)*.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 17) Jenkins, M. D.(1976).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parents' musical experienced and the musical development of two and three year old gir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 Texas State University, Texas.
 - 18) Krechevsky, M.(1994). *Project spectrum: Preschool assessment handbook*.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19) Lenz, S.(1978). A case study of the musical abilities if three and four year-ol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Urbana-Campaign, Illinois.
 - 20) McCall, R. B.(1985). Can your baby hear you?. *Parents*, January, 106.
 - 21) McDonald, D.(1993). Long-range program goals. In M. Palmer & B. Crook(Eds.), *Music in prekindergarten: Planning and teaching*(pp.15-18). Reston, Virginia: the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 22) OECD(1996).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aris, France: OECD.
 - 23) Palmer, M.(1993). Starting points: Music in the prekindergarten classroom. In M. Palmer & B. Crook(Eds.), *Music in prekindergarten: Planning and teaching*(pp.3-6). Reston, Virginia: the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 24) Peery, J. C.(1993). Music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B. Spodek(Ed.), *Handbook of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pp. 207-224). New York: Macmillan.
 - 25) Peery, J. C. & Peery, I. W.(1986). Effects of exposure to classical music on the musical preferences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4(1), 24-33.
 - 26) Scott-Kassner, C.(1993). Musical characteristics. In M. Palmer & B. Crook(Eds.), *Music in prekindergarten: Planning and teaching*(pp.7-14). Reston, Virginia: the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 27) Thomas, R. B.(1970). Manhattanville Music Curriculum Program(MMCP): Final report. Washington, DC: U.S. Office of Education, Bureau of Research. *ERIC document ED 045 865*.
 - 28) Williams, D. B.(1977). An interim report of a programmatic series of music inquiry to investigate melodic pattern identification ability in children.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 78-82.
 - 29) Wolf, J.(1992). Let's sing it again: Creating music with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January, 56-61.